

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렙바이블 대본집

Ep.012

요셉의 꿈풀이

(창세기 37:36~40:23)




Illustration of Joseph and his brothers. Joseph is on the right, wearing a white robe and a yellow headband, with a calm expression. His brothers are on the left, wearing white robes and headbands, with expressions of concern or surprise.



이글거리는 태양이 쉼새없이 타오르고
뜨거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사막길.

그 사막길을 요셉이 걸어가고 있었어요.
형들의 버림을 받고 이집트 상인들에게
노예로 팔려가는 길이었죠.


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요셉은 마침내
이집트에 도착했어요!
이집트는 생각보다 훨씬 멋진 곳이었죠.



얼굴색이 다른 사람들, 엄청나게 큰 사원들,
뾰족뾰족한 피라미드
그리고 햇빛에 반짝이는 나일 강까지!
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였어요.

“자, 이 분이, 앞으로 내가 모실 주인입니다.
보디발님께 인사드려라!”

요셉을 사 간 보디발은
이집트 왕 파라오의 군대 장관이었어요.
매우 큰 부자였고
수 많은 하인과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죠.



노예 생활을 하게 된 요셉은 무섭고 두려웠지만
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.

“하나님, 너무 외롭고 힘들고 두렵지만
제가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.
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버지와
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?”

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기도를
듣고 계셨어요.

옛날에 요셉이 꾸었던 이상한 꿈들이
현실이 될 수 있도록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.



**요셉은 누구보다도 일을 열심히 했어요!
누구보다 일찍 일어났고
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했어요.
이집트 말도 열심히 배워서 이제 누구와도
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.**

**“어린아이가 아주 영특하고 성실하구나.
저 정도의 아이라면, 모든걸 맞길 수 있겠는걸?”**

**요셉을 눈여 본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
집에 모든것을 관리하는 큰 임무를 맡겼답니다.**



그런데 하루는,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
나쁜 마음을 먹었어요!
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기로 한거죠.

“요셉아~ 집에 아무도 없는데
내 방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니?”

하지만 요셉은 그럴 수 없었어요.
하나님과 보디발 장군을 생각하면
그런 옳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없었죠.



**“안 돼요. 그럴 수 없습니다.
방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고
저는 이만 나가서 일하겠습니다.”**

**요셉에게 거절당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
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!**

**“하, 고작 노예 주제에 제까짓게
나를 무시해? 두고 보자...”**



그리고 그날 밤, 보디발 장군이 돌아왔을 때
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거짓말을 꾸며내기 시작했죠.

**“흑흑흑... 여보 당신에 데려온
저 못된 노예가...! 오늘 허락도 없이
제 방에 들어왔어요...!
제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더니!
화들짝 놀라서 는 그제야 도망치는거 아니겠어요?
아이고 내 신세야... 흑흑흑흑....”**

그 말을 믿은 보디발 장군은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.



**“뭐야? 요셉 네 놈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.
여보라! 요셉을 찾아서 당장 감옥에 가둬거라!”**

**그렇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
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.**

**“정말 너무 힘들구나 꼭 참고 열심히 일하면
아버지와 베냐민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
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게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”**



그날 밤, 하나님께서는 울다 지친 요셉을
위로해주셨어요.

요셉에게 다시 희망을 주셨고
감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죠.

요셉은 다시 한 번 기운을 냈고 감옥에서도
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했어요.


그러자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은 그런 요셉을
기특하게 생각했고!
요셉에게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요!



**죄수가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다니
요셉과 함께 하신
하나님께서서 엄청난 일을 해 주신 거죠.**

**그 때 감옥에는 파라오 왕의 두 명의 신하가
들어와 있었어요.**

**한 명은 왕이 마시는 술을 만드는 신하였고,
다른 한 명은 왕의 떡을 굽는 신하였죠.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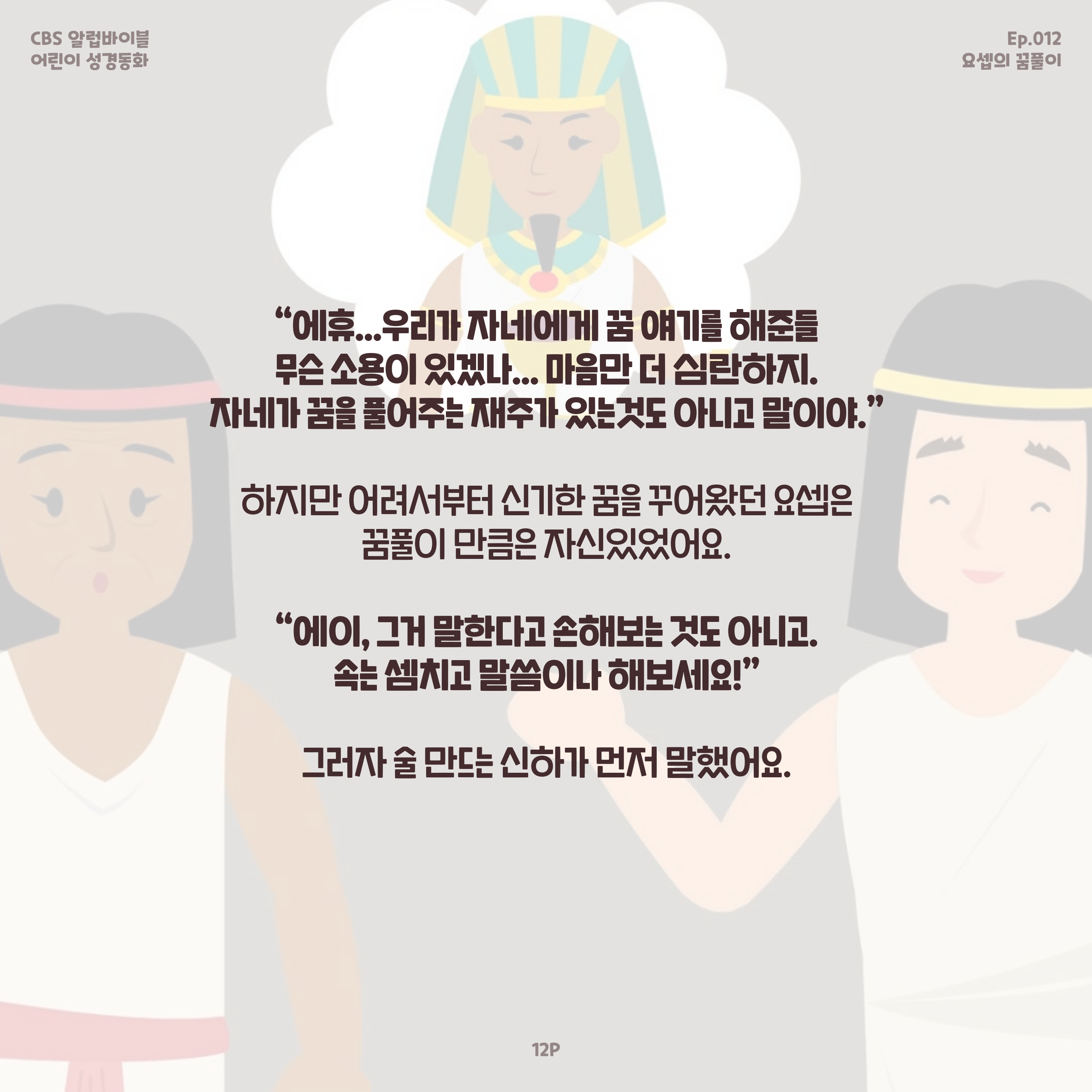
하루는 요셉이 그 둘을 봤더니
둘 다 근심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.

“아니, 두 분다 왜 그러세요?
한숨 소리에 땅 개지겠어요. 무슨 일 있으세요?”

술 만드는 신하가 말했어요.

“우리 둘 다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어서 그런다네.”

“꿈이요?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?”




**“에휴...우리가 자네에게 꿈 얘기를 해준들
무슨 소용이 있겠나... 마음만 더 심란하지.
자네가 꿈을 풀어주는 재주가 있는것도 아니고 말이야.”**

**하지만 어려서부터 신기한 꿈을 꾸어왔던 요셉은
꿈풀이 만큼은 자신있었어요.**

**“에이, 그거 말한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.
속는 셈치고 말씀이나 해보세요!”**

그러자 술 만드는 신하가 먼저 말했어요.



**“내 꿈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세 개 있었는데
거기에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지 않겠나.
그래서 내가 그 포도에서 즙을 짜다가
파라오 왕께 바치는 꿈을 꾸었다네.”**

그러자 요셉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.

**“에이~ 좋은 꿈인데 뭘 걱정하세요!
자~ 세 개의 포도나무 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.
나으리께서는 3일 안에 다시 왕의 부르심을 받고
왕을 위해 술을 만들게 될 거예요!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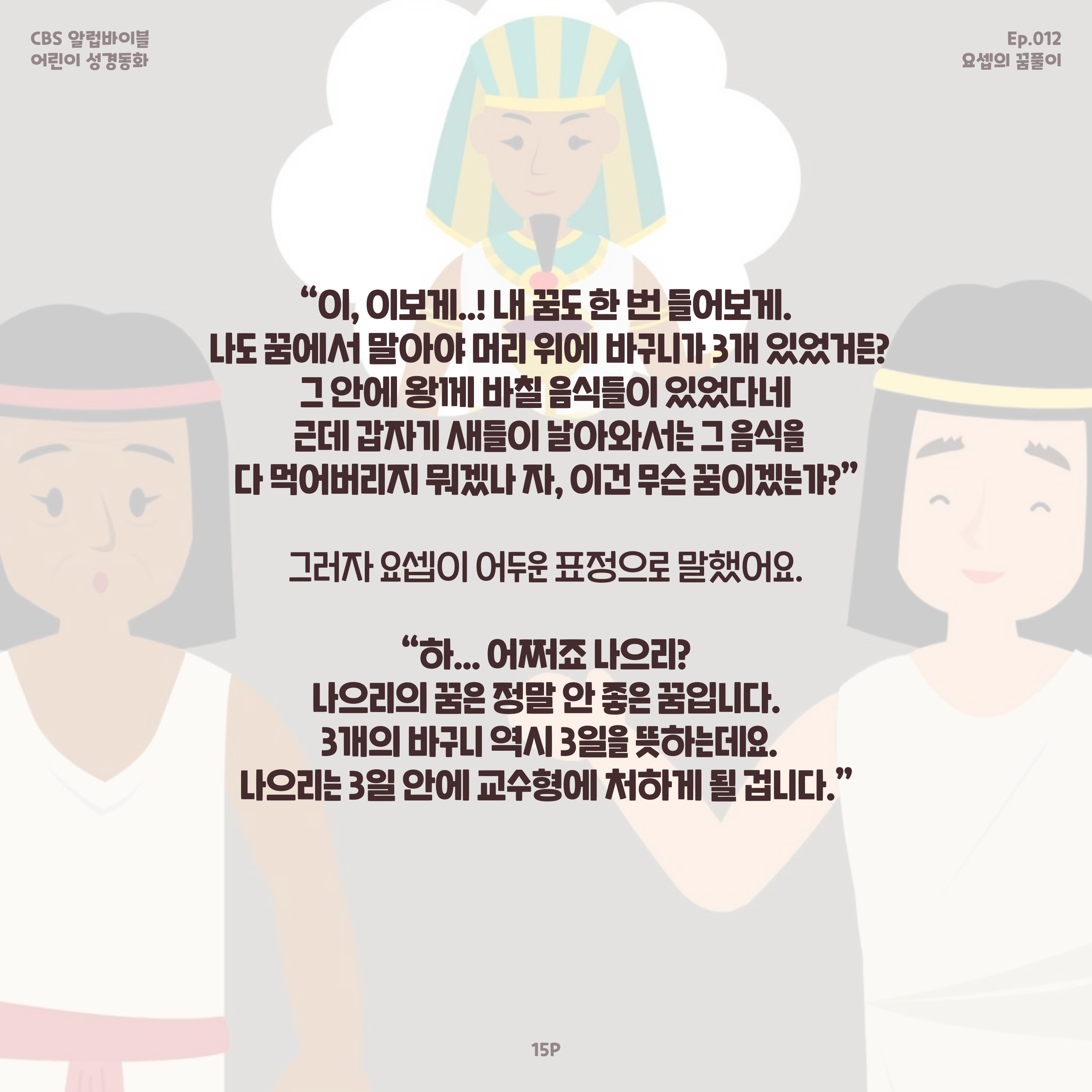


“뭐..? 그, 그게 정말인가?”

**“정말이니가 믿어보세요!
나리, 대신 나중에 제 말대로 왕게 돌아가시면
꼭 제가 겪은 억울한 일을 말씀 드려 주세요.
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!”**

술 만드는 신하는 그러겠다고 요셉에게 약속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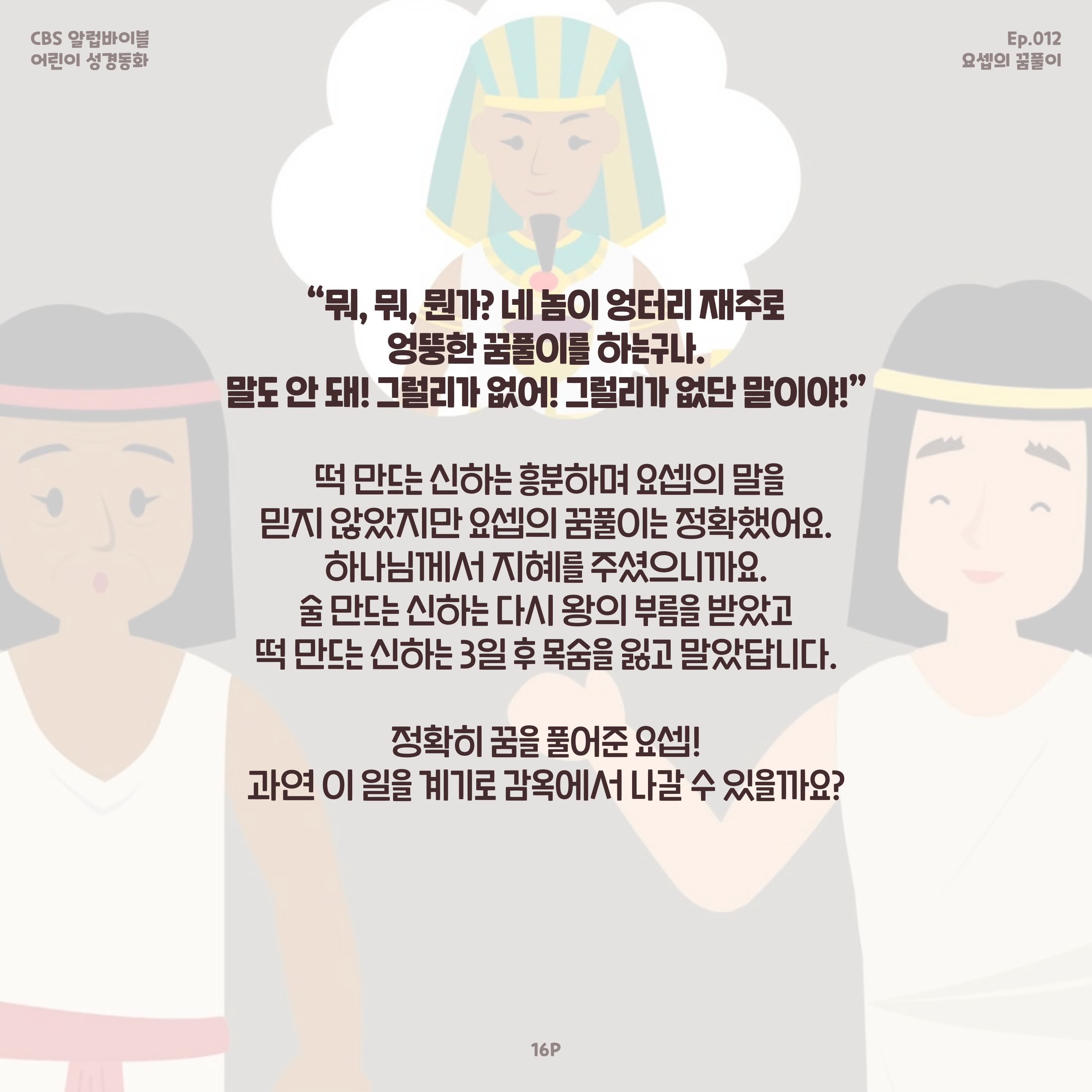
그 모습을 지켜본 떡 만드는 신하가 말했어요.



**“이, 이보게..! 내 꿈도 한 번 들어보게.
나도 꿈에서 말아야 머리 위에 바구니가 3개 있었거든?
그 안에 왕께 바칠 음식들이 있었다네
근데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서는 그 음식을
다 먹어버리지 뭐겠나 자, 이건 무슨 꿈이겠는가?”**

그러자 요셉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.

**“하... 어쩌죠 나으리?
나으리의 꿈은 정말 안 좋은 꿈입니다.
3개의 바구니 역시 3일을 뜻하는데요.
나으리는 3일 안에 교수형에 처하게 될 겁니다.”**



**“뭐, 뭐, 뭔가? 네 놈이 엉터리 재주로
엉뚱한 꿈풀이를 하는구나.
말도 안 돼! 그렐리가 없어! 그렐리가 없단 말이야!”**

**떡 만드는 신하는 흥분하며 요셉의 말을
믿지 않았지만 요셉의 꿈풀이는 정확했어요.
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가요.
술 만드는 신하는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았고
떡 만드는 신하는 3일 후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.**

**정확히 꿈을 풀어준 요셉!
과연 이 일을 계기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?**